

“대학교 본과 외국어 비통용 어종 학과 규범”의 측면에서 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북단대학교 강은국

0. 머리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이에 따라 날로 발전하는 한중 교류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바, 4 년제 종합대학에 설치된 한국어 학과만 보더라도 100 개소에 박근하고 있다.¹⁾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상당히 짧은 시일에 이렇듯 급속하게 발전 성장했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보다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 교육부 외국어 교육 지도위원회에서 제정한 “高等学校本科外语非通用语类专业规范”(이하 “规范”으로 간칭), 그리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高等学校外语专业本科教学评估方案(试行)”(이하 “方案”으로 약칭)에 비추어 우리 중국에서의 4 년제 본과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진맥해 보면서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 년에 중국 조선(한국)어 교육연구학회에서 진행한 “전국 조선(한국)어 학과 실태조사 보고”(이하 “보편조사”로 약칭)와 본인이 방문 및 특별 강연 등 기회를 이용해 진행한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과의 발전 역사와 규모, 사생 비례와 교수진,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 교재 개발과 도서 자료 등 측면에서 대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 외국어 교육 지도위원회에서 제정한 “规范”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주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노력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2. “规范”의 요구에 비추어 본 대학 본과의 한국어 교육

1) 발전 역사와 발전 규모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 교육

정상적인 상황에서 교육의 규모는 교육의 발전 역사와 정비례한다. 학과의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세계의 선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중국 언어문학, 역사학, 철학 등은 그 발전 규모가 대단한데 이런 대규모의 발전은 오랜 발전 역사를 토대로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는 학과 발전의 규모와 질은 그 발전 역사와 정비례됨을 설명해준다. 외국어의 경우도 이런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 우리 외국어 교육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영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점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이리하여 학과의 발전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그 발전 역사와 규모가 하나의 지표로 되게 된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高等学校外语专业本科教学评估方案(试行)”(이하 “方案”으로 약칭)에서는 학과 건설 계획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专业建设规划符合外语教学规律、符合学校实际情况、社会发展和经济建设的需求。”²⁾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 학과의 경우는 어떠할까? 과연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법칙에 부합되고, 각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며, 사회 발전과 경제 건설의 수요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그 건설 계획이 세워지고 학과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어 학과의 발전은 다른 비통용어 학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60 여년이란 발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세기 50 년대 초 북경대학,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낙양해방군외국어학원에서 선후로 조선어학과를 설립한 뒤를 이어 70 년대 초, 연변대학, 북경제 2 외국어학원에서도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되었던 대학 입시제도가 회복됨에 따라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80 년대 중반에 대련외국어학원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이리하여 개혁개방 이전 대륙에서 조선어학과를 설립한 대학이 6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세기 90 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어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19 개로 증가되었고 21 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새롭게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만 해도 79 개소나 된다. 이는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대학 총수의 81%나 된다.

이제 그 분포와 규모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지역별 한국어 학과 개설 현황 ³⁾

지역	한국어 학과 개설 연대			
	1990 년 전	1990 년대	2000-2008 년	계
산동성		7	22	29
길림성	1	1	11	13
요녕성	1	1	9	11
강소성			11	11
흑룡강성		1	9	10
북경시	3	2	4	9
화남지구			7	7
상해시		2	2	4
질강성			2	2
계	5	14	77	96

위의 도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0-2008 년 사이에 우리 한국어 학과는 매년 평균 9 개소 남짓이 증설되는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한 측면에서 매년 70 여 명에 달하는 한국어 교원의 배출을 전제로 한다는 풀이로 되는데 당시의 실정에서 과연 가능했었던 일일까? 매년 70 여 명의 한국 언어문학 전공 석박사를 배출한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 여건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우리 한국어 학과 건설 계획이 단순히 사회 발전과 경제 건설의 수요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 년대에 한국어 학과가 대폭 증가된 산동성, 강소성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화남지구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과 더불어 한국어 인재의 수요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지역에서의 한국어 학과의 대폭 증설은 사회의 발전과 경제 건설의 수요에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어 학과를 대폭 증설한 것이 본 대학의 교육 여건에 부합되며 또 이렇게 급속한 시일 내에 동일 외국어 학과를 대폭 증설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법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산동성의 상황을 예를 들어 8 년 사이에 이 성에서는 22 개의 한국어 학과를 신설했는데 년 평균 3 개의 학과가 증설된 셈이다. 이는 년 평균 24 명의 한국어 학과 교수의 배출을 전제로 한다는 풀이로 된다. 산동성 자체의 교육 여건에서 이런 방대한 양의 교수 증가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부득이 다른 지역의 지원에 힘입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시피 자체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총적으로 우리 한국어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고는 하나 그 발전이 매우 기형적이다. 그 후과는 뒤에서 고찰하게 될 사생 비례와 교수진이 교육부의 요구와는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는 등 일련의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우리의 교육에서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보아온 학과 발전의 불균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비통용 어종 기타 외국어 학과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에는 71 개소의 대학에서 46 종의 비통용 어종 외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제외한 기타 45 종의 비통용어 학과가 2000 년 이후에 증설된 수는 총 20 개에 불외하다.⁴⁾

2) 사생 비례와 교수진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 교육

(1) 사생 비례

교육부의 “高等學校外語專業本科教學評估方案(試行)”에서는 사생 비에 대해 중요 지표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师生比符合教育部对外语专业的规定, 专业技能课坚持小班上课。”⁵⁾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규정한 사생 비는 구경 얼마일까? 이에 대해 “規範”에서 보다 명확한 답을 찾아 볼 수 있다.

“規範”에서는 구체적인 사생 비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专业的师生比符合教育部的规定, 承担本专业一个班次的专业技能、专业知识课程的任课教师一般不少于3人, 每年招生的专业每个班次的教师平均不少于2人”, “每班的学生人数宜控制在20人以内, 最多不超过30人”⁶⁾.

“規範”의 이 요구에서 우리는 한국어 학과의 사생 비는 가장 높아서 1: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 학과의 경우는 이 “規範”의 요구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

2009 년 상반기까지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어 학과 교수 수는 613 명이고 재학생 수는 23,130 명으로서 평균 사생 비는 1:38 이다. 지역별 사생 비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도표」2 지역별 사생 비

지역	교수 수	학생 수	사생 비
산동성	185	8,302	1 : 45

길림성	92	3,908	1 : 42
흑룡강성	76	3,107	1 : 42
요녕성	88	3,533	1 : 40
강소성	44	1,425	1 : 32
절강성	24	678	1 : 28
화남지구	32	880	1 : 27
북경시	47	867	1 : 18
상해시	25	430	1 : 17

이상의 수치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어 학과의 교사진은 교육부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規範”의 요구에 따르면 전국 한국어 학과의 교원 총수는 1,540 명에 달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교수 수는 613 명에 불과하니 배도 넘는 927 명이나 모자란다는 말이다.

사생 비의 이와 같은 불균형은 우선 교육질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 지식의 전수와 함께 학생들 스스로의 훈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경우 우리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와의 1:1 의 충분한 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번 조사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 질이 비교적 높은 북경대학,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등은 사생 비가 각각 1:7, 1:5, 1:10 으로서 한 학급의 학생수가 20 명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만약 사생 비가 1:10 을 초과하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한 학급의 학생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선생의 1:1 의 교류는 근본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생비의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음으로 우리 교수들의 과학 연구와 교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지금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수들의 부족으로 많은 교수들이 주당 20 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다. 극히 개별적인 학교의 교수들은 주당 24 시간 이상의 강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야 언제 과학 연구며, 교수 연구를 진행하겠는가?

북경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등 몇 개 중점대학의 경험에 의하면 만약 교수들의 수업 시간이 주당 6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수들의 과학 연구와 교수 연구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며, 만약 수업 시간이 주당 8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수들의 과학 연구와 교육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 기계(讲课机器)로 전락되면 교육 질은 자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2) 교수진의 직함 및 학력

“規範”에서는 교사진에 대한 총체적 요구를 “师资队伍水平较高,并相对稳定;在学历、职称、年龄、学缘和知识结构等方面比较合理;有学术造诣较高的学科带头人。”⁷⁾라고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직함 비례와 학위 비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高级职称教师占专任教师的比例不低于 30% ; 35 周岁以下青年教师中有硕士以上学位的比例力争达到 100% , 并逐步提高具有博士学位教师的比例。”⁸⁾

그렇다면 목전 우리 한국어 학과의 교사진의 정황은 어떠할까? 아래 “보편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도표」3 교사진의 직함 현황

직함	인수	비례 %
교수, 부교수	159	26 (17.4) ¹⁾
강사	257	42
조교	197	32
합계	613	100

이상의 수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어 학과 교수진의 직함 비례는 매우 불균형하다. 특히는 고급 직함 소지자의 비례가 “規範”의 요구에 비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들에서는 “規範”에서 정한 표준이 너무 높다고 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規範”의 표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高等學校外語專業本科教學評估方案(試行)”의 표준에 비하면 15%를 낮추어 정한 것이다. “高等學校外語專業本科教學評估方案(試行)”에서는 고급 직함 비례에 대해 “高級职称教师占专任教师的比例不低于 45%”, “有一定数量不超过 55 周岁的教授和不超过 40 周岁的副教授”⁹⁾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이번 “보편조사”에서 발견된 일부 학교의 가장 높은 직함이 조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표」4 교수진의 학력 상황

학 위	인 수	비례 %
박 사	121	20
석 사	313	51
학 사	179	29
합 계	613	100

이상의 수치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어 학과의 재직 교수들의 학력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너무나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規範”보다 좀 낮은 요구를 제기한 “高等學校外語專業本科教學評估方案(試行)”에서도 석사 이상의 비례를 90%로 정하고 있다.¹⁰⁾

이번 보편 조사에서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극히 개별적인 몇 개 대학의 재직 교수의 최고 학력이 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학교들에서는 학사가 학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의 경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그 표준을 상당한 정도로 낮추어 과도기의 표준으로 제정한 “規範”의 요구에 비추어 보면 근 30%에 달하는 교수들이, “方案”의 표준에 비추어 보아도 20%에 달하는 교수들이 표준에 미달이니 그 문제의 엄중성은 더 말할 않아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3) 교수진의 교육 및 과학 연구 능력

교육부에서 제정한 “方案”에서는 재직 교수들의 교육 연구 능력과 과학 연구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专任教师近三年出版学术著作不低于5部”，“专任教师近三年人均发表论文1篇”，“专任教师近三年承担省部级以上项目1项以上”，“专任教师近三年获省部级以上奖励1项以上”。¹¹⁾

“規範”에서도 그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专业教师三年内人均发表学术论文或教学研究论文1篇以上，出版学术著作或教材1部以上；鼓励教师主持或参加校级或校级以上的科学研究或教学研究的项目，平均三年立项1个以上。”¹²⁾

"方案"이나 "規範"의 이 요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북경대학교,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낙양해방군외국어학원이나 기타 국가 중점대학의 한국어 학과를 놓고 보면 별로 높은 요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대학교들에서는 이 표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어 학과는 이 표준과는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다. "方案"이나 "規範"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 학과가 급속히 증가된 8년을 기점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조사한 한국어 학과가 설립된 대학이 96 개소이니 총 256 권의 학술 저작 혹은 교재가 출판 발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의 한국어가 교수가 613 명이니 적어도 1634 편의 과학 연구 논문이나 교육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어 학과의 연구 성과가 과연 이런 수준에 달하고 있는가?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학술 저작 혹은 교재를 한 부도 펴내지 못한 대학이 적지 않고 또 한 편의 학술 논문 또는 교육 연구 논문도 발표하지 못한 교수 역시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어떤 인위적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학 연구 능력과 교육 연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직함 평의를 보면 저희 복단대학교를 일례로 부교수 직함을 평의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1 부의 학술 저작에 5 편의 핵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며 교수는 1 부의 학술 저작에 10 편의 핵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다. 다른 대학에서 보내온 직함 평의의 "外审" 자료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대학교들에서 1 부의 학술 저작은 고급 직함 평의의 필수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 연구나 교육 연구 활동을 등한시해서야 되겠는가?

3)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 교육

“規範”에서는 본과 외국어 비토용 어종 학과의 양성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高等学校外语非通用语种类专业培养学生掌握一种有着较强的听、说、读、写、译等语言技能的语种（简称专业外语），能够较熟练地运用英语，掌握专业外语对象国（或地区）的文学、历史、文化、政治、经济等方面的基础知识，具有较强的跨文化交际能力，能够胜任外交、国际文化交流、涉外企业管理、新闻出版和外语教学等领域要求的专门人才；或具有扎实的专业基础，在本专业领域或相关学科继续深造的专门人才。”¹³⁾

그리고 이런 양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非通用语种类专业课程分为专业技能、专业知识和相关专业三种类型。三种类型的课程如下： 1. 专业技能课程：指综合训练课程和各种外语技能的单项训练课程。其中核心课程为基础外语、高年级外语、语音、听力、视听说、口语、外文报刊阅读、写作、口译、笔译等。 2. 专业知识课程：专业外语语言、文学和文化方面的课程。其中核心课程为语言学导论、语

言对象国(地区)社会文化、专业外语语种的文学史、文学作品选读和论文写作等。3. 相关专业课程：指与专业有关联的其他专业知识课程，即有关外交、国际法、国际金融、国际经贸、管理、汉语言文学、新闻、教育、科技、文化、军事等领域的专业基础知识课程。可视条件和需要开设外交学导论、国际关系概论、西方政治制度、国际法入门、语言学习理论、英语测试、英语教育史、中国文化概论、现代汉语、传播学导论、国际贸易实务、国际商业概论、经济学概论、国际金融概论、涉外企业管理概论、统计学入门、世界科技发展史、计算机应用等选修课程。”¹⁴⁾

위의 양성 목표와 관련하여 이번 보편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각 대학교들에서 제정한 양성 목표가 서면 상에서 볼 경우에는 이 요구에 기본상 접근하고 있지만 각 대학교들에서 제정한 양성 목표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 년 이후에 갓 설립된 많은 지방 대학들, 지어는 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제정한 양성 목표가 북경대학교,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상해외국어대학교 등 교육부의 중점대학교들에서 제정한 양성 목표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어 어떤 대학교의 양성 목표는 이런 중점 대학교의 양성 목표보다 더 높게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양성 목표는 사회의 수요와 본 대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야 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양성 목표는 다른 대학의 것을 모방하는 다시 말하면 후에 설립된 대학은 먼저 설립된 대학교들에서 제정한 양성 목표를 수집 정리하여 그 속에서 좋은 말마디를 골라 자기의 양성 목표를 제정한 높은 평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0 년 이후에 설립된 대학교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제 1 명문대로 불리는 북경대학교를 따를 대학이 몇 개나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성 목표가 북경대학교와 일치하다니 그래 이것이 자체 대학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설정한 양성 목표란 말인가?

양성 목표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점은 이 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 과정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각 대학교들에서 제정한 교과 과정에서 제지되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相关专业课程” 부분이다. 많은 대학교들에서 자체 대학의 학과 개설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規範”에서 제기한 학과목들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학과의 교과 과정에 이런 상관 학과의 지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어 학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의 학과 건설의 제약성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들에서는 한국어 학과의 양성 목표를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춘 북경대학교 등과는 차등이 있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과 과정에서 보여 지고 있는 다른 한 문제는 “专业知识”인데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은 대학교들에서 언어학개론, 한국문학사 등 학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각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물론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시험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언어학개론과 한국문학사는 4 년제 본과 대학교의 필수 과목으로서 어느 대학교에서나 반드시 개설해야 할 것이나 관련 교수의 결핍 등 원인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대학교의 실정이다.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학생들의 취업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북경대학교 등 명문대의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월봉이 4000-5000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지방대학교 졸업한 한국어 학과 졸업생들의 월봉은 1500-2500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차이를 단순히 학교 간판이 가져다준 차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 교육

“規範”에서는 수업 시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四年制专业的总学时为 2500 学时左右。专业课总学时为 2000 学时左右，专业技能课程的授课时数为专业课总学时的 40%左右，专业知识课程的授课时数为专业课总量的 35%左右，相关专业知识的授课时数为专业课总量的 25%左右。”¹⁵⁾

그리고 이수 학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四年制专业的总学分为 160 学分左右。专业技能和专业知识课程的学分不少于 100 学分，其余为相关专业课程、通识教育和综合教育的学分。各校可以根据实际情况适当调整学分。”¹⁶⁾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국어 학과의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을 둘러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전공 학과의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이 “規範”의 규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공 학과의 수업 시수가 1312-2484 인데 2000 시간을 초과하는 대학교는 극히 개별적이고 절대부분의 대학교들은 1700 시간 좌우로 되어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수업 총 시수가 1400 시간 이하로 되어있는 학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관련 학과의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이 “規範”의 규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편조사”에 반영된 자료를 보면 관련 학과의 수업 시수와 이수 학점이 “規範”의 규정에 접근하는 학교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수업 시수는 양성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적 보증으로 된다. 그런데 이런 시간적 보증이 없이 규정된 양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5) 도서 자료와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 교육

(1) 도서 자료

“方案”에서는 도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本学科拥有的专业图书总量能满足学科建设需要”，“供学生阅读的与本学科相关国内的期刊 20 种以上”，“供教师查阅的、国外出版的学术期刊与报纸 10 种以上”，“每年平均购置的、与本学科相关的国外原版图书 50 种以上”。

“方案”의 이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도서 자료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가장 엄중한 문제는 2000 년 이후 설립된 한국어 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의 도서 자료를 확보한 학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교수 준비에서의 필수 도구의 하나인 주석사전과 대역사전조차 변변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순리대로라면 새로운 학과의 개설은 도서 자료를 포함한 일체 교육 시설의 정비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학과를 먼저 설립한 이후에 해당 학과에서 수요로 하는 도서 자료 등 교육 시설을 갖추기에 급급해 하는데 이런 대학교들이 어떻게 관련 교육 부문의 인가를 얻었는지 참 의심스럽다.

도서 자료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른 한 문제는 도서 자료 경비의 부족 등 원인으로 한국 또는 조선에서 출간된 학술지나 신문 등을 10 종 이상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또는 조선에서 출간된 학술지를 그나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두 세 종에 불과하니 이 정도의 자료로 어떻게 교수들과 학생들(주로는 대학원생들)의 학술 연구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도서 자료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른 한 보편적인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외국 도서 구입 계획에서 한국어 학과 전용 외국 도서 구입 계획은 망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복단대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어학과 설립된 지도 15 년이 되지만 학교도서관에서는 1 종의 한국 혹은 조선에서 출판된 도서 자료를 한 권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 한국어 학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련 도서 자료는 모두 학과 선생들의 노력으로 여기저기서 얻어 들인 것들이다.

(2) 교재 개발

“規範”에서는 교재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教材选用要符合教学大纲或专业规范，基础课程的教材均应为正式出版教材。在选用教材时，应首选考虑选用普通高校等教育国家级规划教材或语言对象国（地区）的原版教材。”¹⁷⁾

교재와 관련하여 “보편조사”에서 반영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한국어 학과의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에 따라 계획 설계된 통용 교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출판 발행된 한국어 교재가 10 여 종에 이르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부가 일부 학교들에서 자체의 수요에 따라 설계 집필한 교재로서 “規範”에서 규정한 양성 목표와 교육 과정과는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 일부 국가 급 ×× 계획 교재로 자칭하는 교재들도 실질상에서는 한 두 개 학교의 몇몇 사람들이 집필한 교재로서 명실상부의 국가 급 계획 교재는 아니다.

둘째, 각 대학교들에서 개발한 교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독 교재가 주류를 이루고 거기에 따른 기타 학과목의 교재는 별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라면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모든 학과목의 교재를 망라한 체계적인 시리즈 교재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설계 개발된 완전한 교재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재 개발' 하면 정독 교재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외국의 교재를 인입해 사용하는 데서 신중성을 기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편조사”에 의하면 지금 적지 않은 대학교들에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등 한국에서 개발한 교재를 정독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처사는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는 모두 한국 자체의 수요에 의해 계획 집필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교재는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수업 시의 언어장애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공 학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우리 중국의 실정과는 그 목표 설정에서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출간된 일부 교재를 인입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개발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충 살펴보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재 개발 경비와 인재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재 개발 경비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교재 개발

인재난은 비교적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가 교재 개발 인재난을 들고 나오는 데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본과대학이 근 100 소에 이르고 교재를 집필한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수들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교재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교재 개발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주되는 원인은 교재 개발이 다른 학술 저서의 집필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몇 개 대학교에서 직함을 평의할 경우 교재를 학술 연구의 성과로 쳐주고 있는가? 한 편의 학술 논문보다 못한 것이 교재가 아닌가? 그러니 그 누가 수많은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교재 개발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적인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난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規範”과 “方案”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주요 지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번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최근 몇 년 간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여건을 무시하고 외국어 교육의 법칙을 위배한 건설 규모의 맹목적인 확대, 사생 비례의 엄중한 실조, 교수진의 부족, 도서 자료의 빈곤, 양성 목표와 교과 과정의 탈선 등 학과 건설에서의 주요 지표에서의 문제가 바로 이점을 잘 말해 준다. 만약 “規範”이나 “方案”의 주요 지표를 우리 한국어 학과의 평가에 적용한다면 약 반수에 달하는 한국어 학과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약 30%의 한국어 학과는 정돈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 학과의 발전에서는 왜 이렇게 엄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여기서 가장 주되는 원인을 한 번 요약하여 제기하면 다음 두 가지로 개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교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학교를 구리는 지도 사상에 엄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보편조사”에서 적지 않은 대학교의 지도자들이 교육을 순순한 제 3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 년 간 한국어 학과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부쩍 늘고 한국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이 잘 되자 많은 대학교들에서 교육 여건이야 어떠하던 너도나도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을 대량으로 모집하였다. 학과 규모의 맹목적 확대, 사생 비례의 엄중한 실조, 교수진과 도서 자료의 엄청난 부족 등은 모두 이렇게 교육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후과가 아니겠는가? 교육을 돈벌이로 간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학교가 운영되니 그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둘째, 각급 교육 행정 부문의 심사 비준 제도에 엄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르면 그 어떤 새로운 학과의 개설을 막론하고 모두 각급 교육 행정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학과의 설립 목적, 규모, 양성 목표, 교과 과정, 교수진, 교육 시설, 도서 자료와 교재, 실험실, 교육 경비 등 학과 건설의 각종 조건들이 바로 이 심사의 내용으로 된다. 그러니 이런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학과들은 각급 교육 행정에서 조직한 심사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학과들이 인가를 받고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래 각급 교육 행정의 실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한국어 학과에서 존재하는 문제 및 그 주되는 원인을 나름대로
짚어보았는데 자신의 이론 및 정책적 수준의 제한으로 그 분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바란다.

주요 참고 자료

- 1) “高等学校本科外语非通用语类专业规范” ,교육부외국어교육지도원회비통용어종분위원회
2. “高等学校外语专业本科教学评估方案（试行）” , 교육부
3.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009 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중국 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